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옥 배재대 교수

이완구 총리 후보 지명의 정치적 의미

졌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통령에게 복종할 가능성이 적다. 많은 사람들이 이완구 총리 후보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고 그를 통해 현재의 소통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정치인이라고 영향력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는 3선의 원이며, 충남도지사를 역임하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기대가 남다르다. 일단 광역단체장의 경험을 통해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 완성 등 지방분권화를 위한 정책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더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정당 내에서, 그리고 국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한 정치력 영향력은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자리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향후 행정부와 국회 관계, 혹은 당-정

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완구 총리 후보는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 핵심은 대통령과 의회(국회) 간 협력의 어려움에 있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분립과 공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결국 그 성패는 두 부처 간 협력 여부에 달려있다. 일부에서 책임총리제 실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두 부처 간 연결고리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다.

물론 이 후보가 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리와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에 근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對)국회 태도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 총리 후보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 후보가 아무리 직언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러 해도 박 대

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권력은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이 후보의 성패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임제 하에서 3년차로 접어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완구 총리 후보 지명은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관리형 총리가 더욱 편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떨어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변화하는 당-정 관계 등 정치적 환경 변화가 이러한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완구 후보는 총리가 되면 대통령에게 직언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할 말은 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대표에 당선되었다. 모든 언론이 이 후보에게 직언을 요구하는 분위기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재왕정 대통령은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社說

F1 난맥상 자치단체 ‘반면교사’ 삼아야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이 26일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온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박준영 전 전남지사야와 이근경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등 F1 핵심 주체 10여 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박 지사 등이 F1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1900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끼쳤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법령에 정한 절차를 어긴데다 정부 부처의 판단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사실 F1은 첫 대회인 지난 2010년부터 네 차례를 치른 동안 빛잔치의 연속이었다. 경주장 건설비 등으로 발생한 지방채만 2957억 원, 지난 4년간 발생한 누적 적자가 1910억 원에 달하는 등 전체적으로 6000억 원이 넘는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자 형세 낭비의 전횡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 역시 F1과 같은 단체장의 그릇된 판단으로 ‘애물단지’가 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개장 이후 3년간 66억 원의 적자를 낸 여수경도개발사업, 74억 원을 날린 사파리 아일랜드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을 포기 수십억 원의 손실을 안긴 목포시의 행정타운, 순천시 관아 활용사업 등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다.

특히 광주와 전남도내 각 지자체에서 열고 있는 축제의 거의 대부분은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이 모두는 출혈이 뻥뻥해도 선심성 처적을 의식한 단체장의 소용영주의, 내 돈이 아니라 돈의 무책임의 산물이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이며 공무원들의 봉급도 줄 수 없는 열악한 지자체들이 무리한 사업으로 지역 손실을 끼친다면 이는 특가법상 배임에 해당되며 두고두고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F1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반복되는 이사업체 횡포, 당국은 뭘 하나

광주지역 이사업체마다 가격이 들쭉날쭉하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적절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말과 평일은 물론 현금과 카드결제 시 요금이 다르고 웃돈을 예사로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광주시에 따르면 총 141곳의 등록 이삿집센터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79.34㎡(24평형) 아파트 기준 주말 이사비용이 평일보다 50만 원 이상 비싸다고 한다. 업체마다 가격도 일정하지 않아 평일은 70만~80만 원, 주말은 90만~13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른바 ‘손 없는 날’인 다음달 28일은 무려 17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니 거의 횡포수준이다.

업체들은 카드결제시 부가세 별도라며 추가 비용과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고 이사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요금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포장이사 피해 상담건수가 매년 100여 건에 이른다. 게다가

가 업체 절반 이상이 피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사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사철마다 터져 나온다. 부당요금 요구와 물건 파손에 따른 보상회피 등 유형도 갖가지다. 업체와 마찰은 이사할 때면 누구나 겪는 고질적인 문제가 돼버렸다.

불량 이삿집센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당국의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단속권이 있는 각 구청은 주민들의 피해예방과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등록업체의 불법영업행위부터 계약의 유효 요구, 이사화물 분실·파손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가격에 대한 지침 마련 등도 모색해야 한다.

소비자들도 권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업체 선정 전에 구청이나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신력 있는 등록업체인지, 배상보험은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작성과 물건 파손시 휴대용 사진 촬영 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의료칼럼

겨울철 고혈압 관리



고영엽 조선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며 질병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인식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고혈압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치료 중인 40~69세 고혈압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이 자신이 고혈압 상태라는 사실을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라고 하더라도 15%는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40세 이상의 성인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야 하며, 진로실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된 고혈압으로 진단되면 즉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고혈압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치료를 시작해서 꾸준히 일상 동안 실행하는 것이며, 치료의 목표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다.

치료방법은 크게 생활요법과 약물요법으로 나눌 수 있다. 모든 고혈압 환자는 혈압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단 생활요법을 실시해야 하며, 환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습관을 개선한 후에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확장기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에 강압제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약물요법과 함께 생활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활요법에는 염분섭취의 제한, 체중 감량 및 칼로리 제한, 콜레스테롤 섭취의 제한과 같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정신적·신체적 안정 및 이완 요법, 금연 그리고 금주 및 절주 등이 있다. 요즘은 이러한 생활요법의 일환으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추운 겨울철,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활동을 할 때는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차가운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도 티슈, 알도스테론과 같은 부신피질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고, 교감 신경의 긴장도가 증가돼 혈관이 수축될 뿐만 아니라 혈압이 상승한다는 사실은 실험적으로 증명됐다.

실제 혈압을 측정해 보면, 여름에 비해 겨울에 보다 높은 계절적 변동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10도 떨어지

면 수축기혈압은 13mmHg 정도, 이완기혈압은 6mmH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특히 겨울철에는 고혈압의 합병증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대한고혈압학회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의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에 33%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혈압 합병증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10월부터 늘기 시작해 12~2월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에 따른 이러한 혈압 변화는 고혈압 환자, 노인, 마른 체형 등에서 특히 더 잘 나타난다. 결국 고혈압 환자는 겨울철에도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외 활동을 할 때 보온에 각별히 신경써야 하며, 새벽이나 이른 아침보다는 기온이 오르는 낮 시간에 활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조나 실내자전거 타기, 따뜻한 햇볕이 쬐이는 낮에 걷기나 달리기 등이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기고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 계기로



황윤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조커를 해고하고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운영하게 하여 직원이 모두 주인의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게 하였으며, 당시 정치자금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사업을 모두 납부했다.

이는 한 기업이 회사의 직원과 국민들 모두에게 깨끗한 기업경영을 토대로 신뢰를 구축한 좋은 사례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 역시 깨끗한 선거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익과 지역경제를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불법적인 금품수수, 향음제공 등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조합장선거의 연중 실시에 따른 인력·예산 등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

투표일시는 3월 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관할선거구에서 공고하는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2015년 2월 26일)부터 선거일전일(3월 10일)까지이고,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 어깨띠, 옷,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만 할 수 있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이전과 할지라도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에 선거운동 목적이 부가되거나 선거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운동기 위반죄 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민들의 경제사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조합장선거에 있어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돈 선거’ 적발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후보자 및 조합원들에게 모르고 행할 수 있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와 예방활동 등의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할 것이다.

기부행위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된다. 선거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되며, 금품을 제공받은 자라도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 선거’척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조합원 등의 깨끗한 선거를 이루고자하는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선출한 조합장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1년 동안 구슬땀을 흘려 맺힌 결실이 보편선거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합의 운영을 잘하는 것은 물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바로 조합의 발전을 위한 확실한 출사가 될 것이다.

無等鼓

발명왕 에디슨의 아들인 토머스 주니어는 사기꾼이었다. ‘전기 활력 회복기’라고 이름 붙인 가짜 건강 기계를 만들어 팔다 사기죄로 고발당하는 등 끊임없이 사고를 쳤다.

영국의 처칠 수상도 ‘자식 복’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린 시절부터 귀공자 대접을 받은 외아들 랜돌프는 씩수없고 경망스럽게도 이름났다. 그는 결국 술 때문에 57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 “거대한 딱갈나무 옆에서 자라는 어린잎은 햇볕을 보지 못했다.” 윌리엄 핼러데이(William Halliday)는 이 말을 인용하며 “자식이 뭐길래”라며 55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

한 X선 사진까지 내놓고 흔들어 보지만 사람들은 쉽사리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듯하다.

반면 자식으로 인해 만면에 미소를 짓고 있는 이도 있다. 차범근(62) 전 수원 감독이다. 그의 아들 차두리(35)는 아시아컵에서 나이를 잊은 활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70m 폭풍 질주 끝에 손흥민의 골을 도운 장면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마치 그 옛날 아버지 차범근을 다시 보는 듯했다. 두리의 활약과 함께 우리 대표팀은 승승장구(乘勝長驅)하며 55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

자식이 뭐길래

의 언어를 할리랄도 친구에게 사기를 쳤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사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 아버지 간디의 다비식에도 불참했을 정도로 생활이 엉망진창이었다. 일본의 유명 한 서양문화사 전문가 모리시타 겐지가 쓴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완구(65) 총리 후보자 역시 지금 자식 때문에 적잖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의 차남은 과거 축구를 하다 인대가 파열돼 병역이 면제됐다 고 한다. 그래서 이 후보자는 절심이 박

요즘 자식들을 가진 아버지는 이래저래 불안하다.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내 아이가 혹시 지금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대 간 아들이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직장에 다니는 딸이 상사의 못된 짓으로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험한 세상에 자식의 활약을 바라보는 두리 아빠는 얼마나 흥분할 것인가. 몇 년 전 그를 식사 자리에서 만나 본 적이 있는데, 인땀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자식 때문에 울고 웃는다.

/이홍재 논설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